

##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박 주 회<sup>†</sup>

신 현 숙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이 여러 부적응 문제의 발생과 관련되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된 일부 아동에서는 부적응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이 발달자산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학생 683명(남학생 351명, 여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외적 및 내적 발달 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외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적 발달자산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내적 발달자산이 완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집단과 적게 노출된 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내적 발달자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져,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집단에 비해 적게 노출된 집단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을 완화시키는 내적 발달자산의 보호효과가 더욱 컸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외적 발달자산은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정도와 무관하게 대인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자산으로서 기능하며, 내적 발달자산은 가정폭력이라는 위험요인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이전에 또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직후에 내적 발달자산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예방과 조기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발달자산, 보호요인, 대인관계문제, 조절효과

\* 이 논문은 신현숙의 지도를 받은 박주회의 교육학 박사학위논문에서 수집한 일부 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주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vnsjj@paran.com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장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나간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않고 위축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여성가족부(2012)에서 실시한 청소년상담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한 상담 문제가 학업/진학 문제에 이어 대인관계문제였으며, 김은숙(2009)의 자료에서도 아동상담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32.1%가 사회성 및 또래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2005)의 연구에서도 아동상담기관을 찾은 내담자 중 사회성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또래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성인과 교류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에 기여한다(Harris, 2000).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를 중퇴하거나 비행, 범죄와 관련되거나 성인초기에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Parker & Asher, 1987).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대인불안을 느끼는 등 대인관계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친구들과 적절히 교류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사회성, 행동, 정서, 학업 등 여러 영역에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중에서 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근접해 있고 아

동이 오랜 시간동안 생활하는 중요한 미시체계이다(Bronfenbrenner, 1979).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아동이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다면 아동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2010)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연간 부부폭력률이 53.8%이었다. 2004년에 44.6%였던 것이 2007년에 40.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53.8%로 증가하였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학대 발생률도 59.1%로 나타나 가정 내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더 심하게 학대할 만큼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심각하다(정준미, 1998).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 자해, 자살 등의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김정란, 2003; 양혜원, 2002; 장덕희, 2004; Eckenrode, Laird, & Doris, 1993).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대인예민성이 더 심하고(남영옥, 2008), 문제해결과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며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저하는 결국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조미숙, 2002). 이처럼 가정폭력이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면,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하였고, 부부간의 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개념도 포함하였다. 이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무시하는 행위, 원치 않은 것에 대한 반복적 요구 행위 등이 이를 당하는 사람이나 목격한 아동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재엽, 이서원, 2005;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 2004).

그런데 역경(adversity)에 노출된 아동들 중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역경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처럼 비교적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심각한 역경을 경험하고도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내는 적응유연한 아동들이다(Heller, Larrieu D'Imperio, & Boris, 1999).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더라도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잘 적응하거나 적응의 경계선 영역에 분포되었고(Hughes & Luke, 1998),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 거의 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Fincham & Osborne, 1993; O'keefe, 1998).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 중에서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겪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아동이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역경을 극복한 아동들이 가진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서 보호요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예, 이상준, 2006; 장덕희, 2010; Garmezy,

Masten, & Tellegen, 1984; Masten, Best, & Garmezy, 1990; Rutter, 1987).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에 주목하였다. 발달자산은 외적 발달자산(external developmental assets)과 내적 발달자산(internal developmental assets)으로 나뉜다(Benson, 2006). 외적 발달자산은 외부 환경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지적인 경험, 역량함양의 기회, 행동규범과 기대,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내적 발달자산은 개인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 사회적 유능성,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자아정체감 등을 포함한다(Benson, 2006). 이처럼 발달자산은 건강한 적응을 방해하는 위험행동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발달의 기회를 강화해주는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Leffert et al., 1998).

발달자산이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발달 결과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다. 특히 Search Institute를 통해, 발달자산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위험행동(예, 폭력, 음주, 흡연, 약물, 조기 성관계, 비행, 도박, 자살)을 적게 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Scales, 1999). 그 중에서도 발달자산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이 보유한 발달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배려, 다양성 인정, 대인간 상호조절의 수준이 높았다(Search Institute, 2005). 부모로부터 적절한 감동을 많이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수줍음과 고립심을 적게 나타냈고(천희영, 옥경희, 김미혜, 2001), 민주적 학교분위기는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긍정

적 영향을 주며(이상준, 2006),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대학교에서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Mahoney, Cairns, & Farmer, 2003). 이처럼 외적 발달자산은 개인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내적 발달자산도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내적 통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anssen & Carton, 1999;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청소년이 가지는 성취목표는 또래 상호간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신뢰하며 친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등 친밀한 친구 관계와 관련이 된다(Levy-Tossman, Kaplan, & Assor, 2007). 역경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은 책임감 있고 문제해결력이 높거나 인내심이 많아서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다(Rutter, 1979; Werner, 1989).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면, 발달자산이란 아동의 적응을 증진시키고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건강한 행동과 태도를 촉진하는 기제를 찾고자 하는 면에서 발달자산과 보호요인은 비슷하다. 그러나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켜서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반드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작동하는 변인이다(Jessor, 1991).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인의 존재 또는 정도와 무관하게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 자산과 보호요인은 다른 구인으로 간주된다(Sesma, Mannes, & Scales, 2005/2009). 위험과 무관한 발달자산의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발달자산이 역경에

처한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발달자산의 긍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의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발달자산은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가진 변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발달자산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지지(외적 발달자산에 해당됨)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불화의 위험에 처한 아동일지라도 적어도 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비교적 건강한 발달을 이루었고(Rutter, 1987), 가족 및 친구의 지지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대인 불안 및 대인 예민성을 감소시켰다(남영옥, 2008).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친사회적인 또래집단의 지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많이 하였고(Perkins & Jones, 2004), 사회적 유능성도 증가하였다(Hoglund & Leadbeater, 2004).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 대해 가진 긍정적 지각은 가출과 위험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한 초등학교생은 높은 수준의 공감,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대처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er, Cowen, Work, & Wyman, 1990; Luthar & Zigler, 1991에서 재인용).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발달자산이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실 보호요인은 위험의 맥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보호요인으로 보

고된 바 있는 요인들이 위협 노출의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의 발달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Wright & Masten, 2005/2009).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발달자산이 위협 수준과 무관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만 기능하는지 아니면 위협에 노출된 아동들의 부적응 감소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자산을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이 다르게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관한 적절한 규범과 기대를 설정하며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등 외적 발달자산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Leung & Slep, 2006;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따라서 고위험 아동의 적응이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 연구(Amato, 2004)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자녀양육능력과 같은 환경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Stolberg, Camplair, Currier, & Wells, 1987)도 있다. 이혼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적 변인이 환경적 변인보다 모든 하위 영역(학교흥미,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이숙, 지선례, 2010). 따라서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발달자산을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개인이 처한 위협의 수준에 따라 보

호요인의 조절효과가 다른지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는 높은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더욱 크게 발휘된다는 주장(Rutter, 1987; 김순규, 2009에서 재인용)과 위험요인이 보호요인보다 발달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위험 집단에서는 보호요인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주장(김정희, 2007; Pollard, Hawkins와 Arthur, 1999; 김순규, 2009에서 재인용)이 대조를 이룬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가정폭력이라는 위협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발달자산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지만, 보호요인과 많은 측면에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발달자산이 위협에 처한 아동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면, 위협에 노출된 아동들 특히 위협에 노출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부정적 발달 산물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발달자산의 완충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발달을 돕는 예방과 조기개입 및 정책의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이 겪을 수도 있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의 완충작용을 검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달자산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가정폭력,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적응의 관계에서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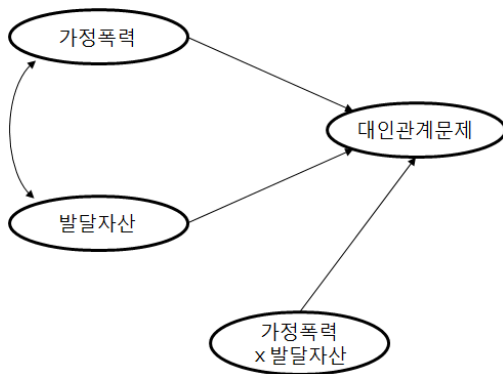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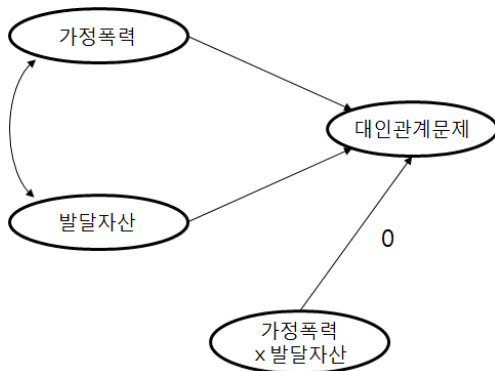


그림 2. 경합모형

(예, Fincham & Osborne, 1993; Heller, Larrieu D'Imperio, & Boris, 1999; Hughes & Luke, 1998; O'keefe, 1998)에 근거하면, 발달자산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가정폭력과 발달자산의 상호작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0으로 고정한 경합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외적 발달자산이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내적 발달자산이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G시 초등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이었다.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자료가 수집이 되지 않도록 G시의 3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대상 1,097명 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 불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양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예,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설문 159부를 제외한 937부 중 지난 1년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68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가정폭력 노출 척도

아동이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정폭력 노출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traus(1990)의 갈등관리행동 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 CTS2; Straus, 1996)를 장덕희(2001)가 중학교 2학년에 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척도이다. 이 중 일부 낱말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예, 모욕적인 → 깔보고 무시하는, 칼이나 흉기 → 위험한 물건).

이 척도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목격한 정도를 묻는 13문항(언어적 폭력 7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과 부모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정도를 묻는 13문항(언어적 폭력 7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을 포함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덕희(2001)의 척도는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과 같이 횟수로 폭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아동이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폭력이 발생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 선행연구(김효진, 이재연, 2004)를 따라서 각 문항이 나타내는 가정폭력을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겪었는지를 생각하면서 1(전혀 없다) ~ 5(늘 그랬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덕희(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가정폭력 목격 .87, 가정폭력 경험 .85이었고, 이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지수는 가정폭력 목격 .92, 가정폭력 경험 .91이었다.

#### 발달자신 척도

발달자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Scales(2000)의 발달자신 모형에 제시된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여 황문선과 조희숙(2004)이 제작하고 정찬우(2010)가 수정한 4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 중에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초등학생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일부 용어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호의적이다’를 ‘친절하다’로, ‘지지 해주신다’를 ‘도와주신다’로,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확신’을 ‘자신감’으로 수정하였고, ‘음주, 흡연, 성관계, 약물’의 부정적

용어 중 ‘음주, 흡연’만 사용하였다.

외적 발달자신은 사회적 지지 7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신다, 나를 돌봐주는 좋은 이웃이 있다), 안전한 환경 6문항(예, 우리 집은 안전하고 편안하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범과 기대 5문항(예, 우리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충고한다), 문화적 활동기회 4문항(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으로 구성된다. 내적 발달자신은 학습열의 5문항(예,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긍정적 가치관 6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적 능력 7문항(예, 나는 친구를 잘 사귀다), 긍정적 정체감 6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느낌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발달자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찬우(2010)의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지수는 사회적 지지 .80, 안전한 환경 .69, 규범과 기대 .58, 문화적 활동기회 .44, 학습열의 .66, 긍정적 가치관 .65, 사회적 능력 .84, 긍정적 정체감 .84, 전체 .92이었다.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내적일관성지수는 사회적 지지 .80, 안전한 환경 .73, 규범과 기대 .61, 문화적 활동기회 .39, 학습열의 .74, 긍정적 가치관 .72, 사회적 능력 .78, 긍정적 정체감 .85, 전체 .94이었다.

### 대인관계문제 척도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홍상황과 황순택(2004)의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 아동보고형(KPI-C-R CRF)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아탄력성,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64개 문항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계 척도 15문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사회관계 척도는 다시 사회적 고립과 대인불안의 2개 하위척도로 구분된다. 연구대상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를 활용한 이봉이(2010)의 연구에서 사회관계 척도의 내적일관성지수는 .78이었고,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내적일관성지수는 사회관계 척도 .86, 사회적 고립 하위척도 .78, 대인불안 하위척도 .74이었다.

### 자료분석

SPSS 20과 AMOS 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별 측정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잠재변수는 가정폭력 목격과 가정폭력 경험의 2개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외적 발달자산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사회적 지지, 안전한 환경, 규범과 기대, 문화적 활동기회이고, 내적 발달자산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이었다. 대인관계문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사회적 고립과 대인 불안으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가정폭력,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에 해당하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값(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과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에서는 자료분포가 정규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자료분포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Curran, West, & Finch, 1997). 일반적으로,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20.0보다 크면 분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언변수나 조절변수가 범주변수가 아니라 연속변수일 때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려면, 분할점(예, 중위수)을 적용하여 연속변수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야 하므로 허구적 상호작용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예언변수 또는 조절변수 중 하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이기는 하지만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는 검정력이 낮다. 반면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분산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의 제한점을 피할 수 있고 예언변수, 결과변수, 조절변수가 각각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잠재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흔히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거치는 Ping(1996)의 2단계 방법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한 발달자산이 연속변수이므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ing의 2단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측정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하고, 측정변수의 평균 중심화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감소시켰다. 다음으로 예언변수와 조절변수의 분산과 공분산, 예언변수와 조절변수의 지표변인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값으로 상호작용항의 분산, 상호작용항 지표변인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계산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된 값으로 상호작용항의 분산과 상호작용항 지표변인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고정된 후에 결과변수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chi^2$  값, 비교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모수 불일치성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TLI와 CFI가 .90을 넘으면 적합한 모형, .95를 넘으면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양호한 모형, .10보다 크면 그 모형은 채택하지 않는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chi^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클수록 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경험적 자료에 더 부합되는 모형을 선택할 목적으로는  $\chi^2$  차이검증을 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평가할 목적

으로는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 연구절차

학생이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격려했고, 연구자와 조사대상 학교의 교과전담 교사 3명이 모든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 실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응답에 20~30분이 소요되었다.

## 결 과

###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각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자료는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였다(Kline, 2010). 가정폭력의 측정변수인 가정폭력 목적은 외적 발달자산의 측정변수 중 규범과 기대, 문화적 활동기회와 내적 발달자산의 측정변수 중 사회적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달자산 측정변수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가정폭력 경험은 외적 발달자산의 측정변수 중 규범과 기대, 문화적 활동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발달자산 측정변수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가정폭력 목적과 가정폭력 경험의 모든 측정변수들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측정변수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또한 모든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의 측정변수들은 대인관계문제의 모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 (N = 683)

|      | 가정폭력 |   |   | 외적 발달자산 |   |   | 내적 발달자산 |   |   | 대인관계문제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가정폭력 |      |   |   |         |   |   |         |   |   |        |   |   |
| 목적   |      |   |   |         |   |   |         |   |   |        |   |   |
| 경험   |      |   |   |         |   |   |         |   |   |        |   |   |
| 가정폭력 |      |   |   |         |   |   |         |   |   |        |   |   |
| 외적발달 |      |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   |
| 내적발달 |      |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   |
| 대인관계 |      |   |   |         |   |   |         |   |   |        |   |   |
| 문제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표준편차 |      |   |   |         |   |   |         |   |   |        |   |   |
| 왜도   |      |   |   |         |   |   |         |   |   |        |   |   |
| 첨도   |      |   |   |         |   |   |         |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든 측정변수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 외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Ping(1996)의 2단계에 따라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 관한 측정 모형과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Ping의 1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측정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 요인 간 공분산 계수는 표 3과 같고,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TLI = .921, CFI = .952, RMSEA = .082이었다. TLI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도 .10보다 작으므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Ping의 2단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분산 및 측정오차 분산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분산은 12.961, 외적 발달자산의 분산은 2.115이었다. 가정폭력 목격과 가정폭력 경험의 오차분산은 각각 28.600, 12.817이었고, 사회적 지지, 안전한 환경, 규범과 기대, 문화적 활동기회의 오차분산은 차례대로 9.532, 5.915, 5.432, 7.558이었다. 측정모형에서 주효과 변인(X)과 조절효과 변인(Z)의 분산과 공분산, 주효과 변인의 지표변인과 조절효과 변인의 지표변인의 요인계수 및 오차분산을 추정하였다. 이를 활용해 계산한 상호작용항(XZ)의 분산(Var(XZ))은 29.781,

상호작용항(XZ) 지표변인의 요인계수( $\Gamma_X \Gamma_Z$ )는 2.579, 오차분산은 139.837이었다.<sup>1)</sup> 이를 고정된 다음에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4, 그림 4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는 .860, CFI는 .902, RMSEA는 .098이었다. 가정폭력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8$ ,  $\beta=.16$ ,  $t=3.22$ ,  $p<.001$ ). 이는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발달자산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의 계수 역시 유의하였다( $b=-1.37$ ,  $\beta=-.51$ ,  $t=-8.36$ ,  $p<.001$ ). 이는 외적 발달자산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외적 발달자산의 상호작용항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b=.05$ ,  $\beta=.07$ ,  $t=1.47$ ,  $p>.05$ ). 이는 외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가설 1이 기각되었다. 반면에 외적 발달자산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므로 외적 발달자산은 대인관계문제의 감소와 관련된 자산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1) \text{Var}(XZ) &= \text{Var}(X)\text{Var}(Z) + \text{Cov}(X, Z)^2 = (12.961) \\
 &\quad (2.115) + (-1.539)^2 = 29.781 \\
 \Gamma_X \Gamma_Z &= \left( \frac{1.718+1}{2} \right) + \left( \frac{2.698+2.120+1.774+1}{4} \right) \\
 &= 2.579 \\
 \text{상호작용항}(XZ) \text{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
 &= \Gamma_X^2 \text{Var}(X) \Theta_Z + \Gamma_Z^2 \text{Var}(Z) \Theta_X + \Theta_X \Theta_Z \\
 &= (1.359)^2 (12.961) \left( \frac{28.60+12.817}{2^2} \right) + (1.898)^2 (2.115) \\
 &\quad \left( \frac{9.532+5.915+5.432+7.558}{4^2} \right) = 139.837
 \end{aligned}$$

표 2.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계수

| 잠재변수    | 측정변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가정폭력 목격  | 1.00   | .56   |      |          |
|         | 가정폭력 경험  | 1.72   | .87   | .34  | 5.13***  |
| 대인관계문제  | 사회적 고립   | 1.00   | .95   |      |          |
|         | 대인불안     | .57    | .62   | .06  | 10.34*** |
| 외적 발달자산 | 사회적 지지   | 2.70   | .79   | .24  | 11.38*** |
|         | 안전한 환경   | 2.12   | .79   | .19  | 11.37*** |
|         | 규범과 기대   | 1.74   | .74   | .16  | 11.17*** |
|         | 문화적 활동기회 | 1.00   | .47   |      |          |

\*\*\*  $p < .001$ .

표 3.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공분산 계수

|        | 경로        | 공분산   | 상관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 대인관계문제  | 4.05  | .28  | .96  | 4.22***  |
| 대인관계문제 | ↔ 외적 발달자산 | -3.15 | -.55 | .37  | -8.43*** |
| 가정폭력   | ↔ 외적 발달자산 | -1.54 | -.29 | .39  | -3.99***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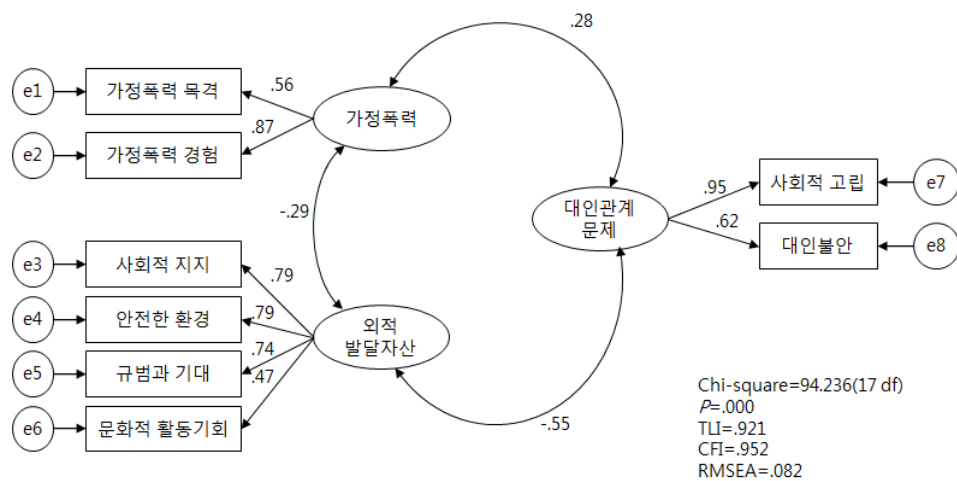


그림 3.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측정모형

표 4.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구조모형의 계수 검증

| 경로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대인관계문제           | .18    | .16   | .06  | 3.22***  |
| 외적 발달자산 → 대인관계문제        | -1.37  | -.51  | .16  | -8.36*** |
| 가정폭력 × 외적 발달자산 → 대인관계문제 | .05    | .07   | .03  | 1.47***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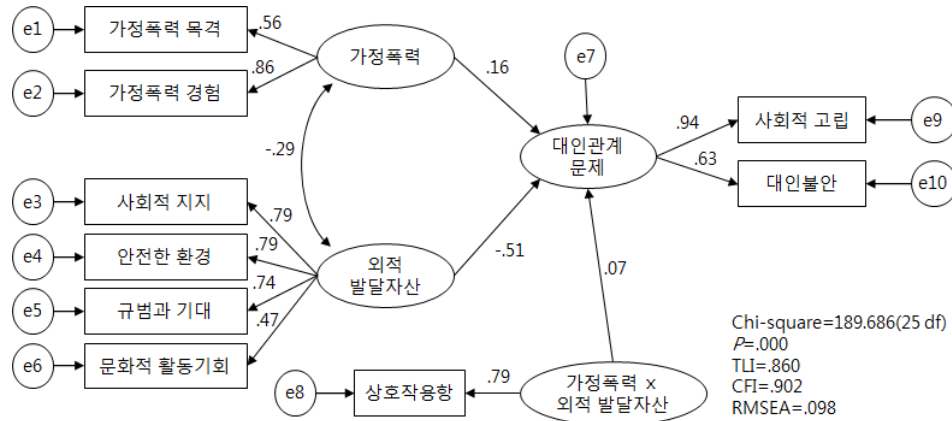


그림 4. 가정폭력, 외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연구모형

####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Ping의 2단계에 따라 가정폭력과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 관한 측정모형과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Ping의 1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의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측정변수들을 포함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 요인 간 공분산계수는 표 6과 같고,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사회관계문제의 측정변수인 사회적 고립의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타나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 위반 변수를 제거하거나 분석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오차분산을 0.005 이하의 값으로 고정시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적재치를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김계수,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의 오차분산을 0.005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TLI가 .918, CFI가 .950, RMSEA가 .098이었다. TLI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도 .10보다 작으므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이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Ping(1996)의 2단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분산은

표 5.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계수

| 잠재변수    | 측정변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가정폭력 목격 | 1.00   | .60   |      |          |
|         | 가정폭력 경험 | 1.50   | .81   | .34  | 4.45***  |
| 대인관계문제  | 사회적 고립  | 1.00   | 1.06  |      |          |
|         | 대인불안    | .47    | .56   | .05  | 9.17***  |
| 내적 발달자산 | 학습열의    | .74    | .73   | .04  | 19.95*** |
|         | 긍정적 가치관 | .83    | .81   | .04  | 22.30*** |
|         | 사회적 능력  | 1.23   | .87   | .05  | 24.24*** |
|         | 긍정적 정체감 | 1.00   | .79   |      |          |

\*\*\*  $p < .001$ .

표 6.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공분산 계수

|        | 경로        | 공분산   | 상관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 대인관계문제  | 4.03  | .24  | 1.02 | 3.95***   |
| 대인관계문제 | ↔ 내적 발달자산 | -8.44 | -.52 | .74  | -11.33*** |
| 가정폭력   | ↔ 내적 발달자산 | -2.81 | -.20 | .85  | -3.29***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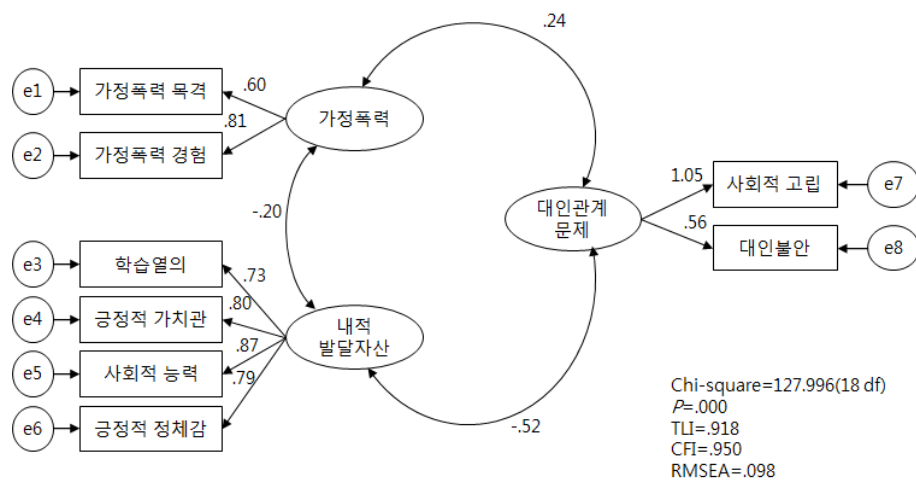


그림 5.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측정모형

표 7.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구조모형의 계수 검증

| 경로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t         |
|-------------------------|--------|-------|------|-----------|
| 가정폭력 → 대인관계문제           | .21    | .19   | .05  | 4.43***   |
| 내적 발달자산 → 대인관계문제        | -.58   | -.51  | .04  | -13.35*** |
| 가정폭력 × 내적 발달자산 → 대인관계문제 | .03    | .10   | .01  | 2.26***   |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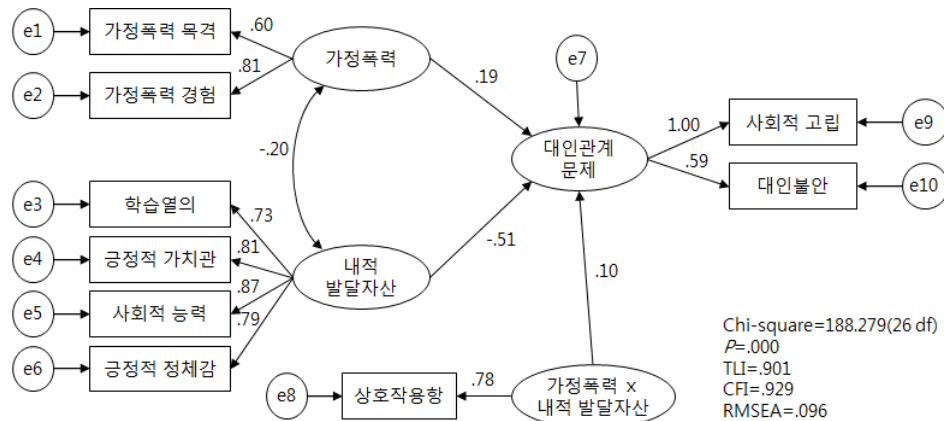


그림 6. 가정폭력, 내적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한 연구모형

14.918, 내적 발달자산의 분산은 13.596이었다. 가정폭력 목적과 가정폭력 경험의 오차분산은 각각 26.643, 17.833,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의 오차분산은 차례대로 6.356, 5.133, 5.486, 8.038이었다.

측정모형에서 주효과 변인(X)과 조절효과 변인(Z)의 분산과 공분산, 주효과 변인의 지표 변인과 조절효과 변인의 지표변인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하였다. 이를 활용해 계산한 상호작용항(XZ)의 분산( $Var(XZ)$ )은 210.727, 상호작용항(XZ) 지표변인의 요인계수( $\Gamma_X \Gamma_Z$ )는 1.153, 오차분산은 183.078이었다.<sup>2)</sup> 이를 고정

한 후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7, 그림 6과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TLI가 .901, CFI는 .929, RMSEA는 .096이었다. 가정폭력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21$ ,  $\beta=.19$ ,  $t=4.43$ ,  $p<.001$ ).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

$$\begin{aligned}
 \Gamma_X \Gamma_Z &= \left( \frac{1.492+1}{2} \right) + \left( \frac{1.130+0.835+0.737+1}{4} \right) \\
 &= 1.153 \\
 \text{상호작용항(XZ)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
 &= \Gamma_X^2 Var(X) \Theta_Z + \Gamma_Z^2 Var(Z) \Theta_X + \Theta_X \Theta_Z \\
 &= (1.246)^2 (14.918) \left( \frac{26.643+17.833}{2^2} \right) + (.926)^2 (13.596) \\
 &\quad \left( \frac{6.356+5.133+5.486+8.038}{4^2} \right) = 183.078
 \end{aligned}$$

2)  $Var(XZ) = Var(X)Var(Z) + Cov(X, Z)^2 = (14.918)(13.596) + (-2.811)^2 = 210.727$

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발달자산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경로계수도 유의하였다( $b=-.58$ ,  $\beta=-.51$ ,  $t=-13.35$ ,  $p<.001$ ). 이는 내적 발달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내적 발달자산의 상호작용항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경로계수도 유의했다( $b=.03$ ,  $\beta=.10$ ,  $t=2.26$ ,  $p<.05$ ).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상호작용항을 0으로 고정한 경합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비교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chi^2$ 값의 차이가 5.066으로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이 경합모형보다 적합도가 좋고 상호작용

항에서 종속변수에 이르는 계수가 유의하므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과 내적 발달자산을 평균중심화 한 다음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과 내적 발달자산을 1차로 투입하고, 상호작용항을 2차로 투입하였다. 여기에서 산출된 회귀방정식은  $Y(\text{대인관계문제}) = 27.459 + .144(\text{가정폭력}) - .189(\text{내적 발달자산}) + .004(\text{가정폭력} \times \text{내적 발달자산})$ 이며,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F = 70.33$ ,  $p < .001$ ). 다음, 내적 발달자산 점수별로 3집단(평균 - 1SD 집단, 평균 집단, 평균 + 1SD 집단), 가정폭력 점수별로 2집단(평균 - 1SD 집단, 평균 + 1SD 집단)을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표 8.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 비교

| 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연구모형 | 188.279  | 26 | .901 | .929 | .096  |
| 경합모형 | 193.345  | 27 | .903 | .927 | .095  |
| 차이   | 5.066    | 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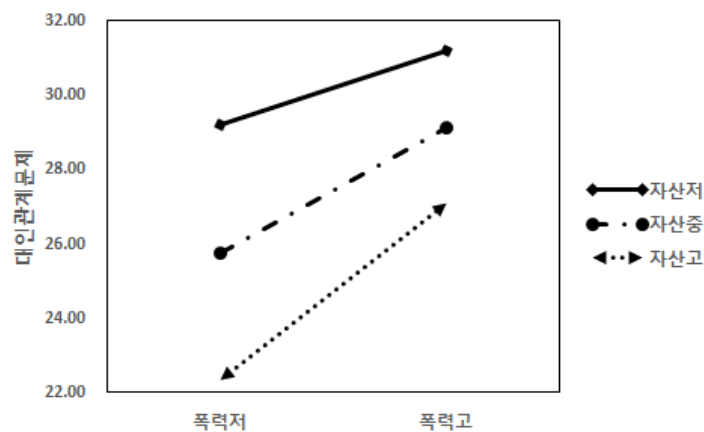


그림 7.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내적 발달자산이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조절하며, 특히, 가정폭력 저집단에서 내적 발달자산의 보호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을 적게 경험한 아동들 중에서 내적 발달자산을 많이 가진 아동들이 내적 발달자산을 적게 가진 아동들보다 대인관계문제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에서 Ping(1996)의 2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의 맥락 안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을 각각 조절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 가정폭력→대인관계문제의 경로계수가 둘 다 유의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특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며(김정란, 2003), 학대당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왜해된 사회관계 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Eckenrode 등, 1993).

둘째,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의 수준이 대

인관계문제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외적 및 내적 발달자산을 많이 가진 아동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달자산은 다양한 성공적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연구(Scales, 2000), 부모의 적절한 감독 같은 외적 발달자산을 많이 보유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수줍음과 고립심을 적게 나타낸다는 연구(천희영, 옥경희, 김미혜, 2001), 민주적 학교분위기 같은 외적 발달자산이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이상준, 2006), 고등학교 시절에 참여한 다양한 특별활동과 문화적 활동이 대학교 입학 이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한다는 연구(Mahoney, Cairns, & Farmer, 2003)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내적 통제성 같은 내적 발달자산을 많이 겸비한 청소년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높은 적응 수준을 유지한다는 연구(Janssen & Carton, 1999;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청소년이 가지는 성취목표는 친밀한 친구관계와 관련이 된다는 연구(Levy-Tossman, Kaplan, & Assor, 2007)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이 연구의 결과 역시 발달자산이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적응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

셋째,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이 각각 가정폭력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반면에 외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적 발달자산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일지라도 발달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험행동을 보일 확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Scales, 1999), 가출청소년들 중에서 학교나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등 내적 발달자산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위험행동을 적게 한다는 연구(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한 초등학생은 공감,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대처전략에서 우수하다는 연구(Parker, Cowen, Work, & Wyman, 1990; Luthar & Zigler, 1991에서 재인용)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외적 발달자산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적 발달자산(긍정적 학교생활 경험, 긍정적 또래관계)이 위기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연구(Luthar & Zigler, 199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대인 불안 및 대인 예민성(남영옥, 2008), 이타적인 행동(Perkins & Jones, 2004), 사회적 유능성(Hoglund & Leadbeater, 2004)의 수준이 가족 및 친구의 지지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포함된 외적 발달자산은 긍정적 또래관계, 가족 지지와 같이 비교적 단일한 자산이었고 이 연구에서 외적 발달자산은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총체적 의미로서의 자산을 의미하므로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고 자녀의 행동에 관한 적절한 규범과 기대를 설정하며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Leung & Slep, 2006;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조절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편, 내적 발달자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

였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의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보호요인이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보다 위험요인의 영향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고위험 집단에서는 보호요인이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Pollard, Hawkins & Arthur, 1999; 김순규,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내적 발달자산은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집단보다는 적게 노출된 집단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Luthar(1993: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에서 재인용)가 주장했듯이,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수준이 감소한다면, 보호요인은 '보호적이나-반응적(protective but reactive)' 효과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조절효과는 위험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적게 노출된 집단을 대상으로 조기에 개입하여 발달자산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긍정적 적응을 유도하고, 더불어 위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증진된 발달자산을 통해 위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발달자산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적 발달자산은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내적 발달자산은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즉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아동들의 내적 발달자

산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적 발달자산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효과는 가정폭력이 심한 집단에서보다는 가정폭력이 적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이 대인관계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위험을 완화시키려면 내적 발달자산 증진의 예방개입을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에서 빈곤, 스트레스, 이혼 등 다양한 위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통제소재, 양육태도 등 일부 보호요인들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빈곤, 이혼 등은 그 안에 매우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요인 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Masten, 2001).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요인으로서 위험을 측정하여 관련 보호요인들의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적, 경험적, 체계적으로 잘 정립된 발달자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산 체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조절효과를 밝혔는데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돕는 예방활동을 개발하는데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발달자산을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으로 구분하여 잠재변수로 설정하였고, 각 발달자산에 해당되는 4가지 하위변수들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들 8가지 발달자산의 영역은 다시 40

개의 발달자산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다양한 위험별로 각기 다른 발달자산이 유의한 작용을 할 수 있다(Aspy et al., 2004; Oman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외적 발달자산과 내적 발달자산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했을 뿐이므로 세부적인 발달자산의 직접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엄밀히 말해 보호요인은 위험의 발생과 함께 작동하므로 시간적 순서의 고려를 요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보호요인은 위험이 발생한 후에 조절작용을 하여 부정적 결과의 발생을 완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발달자산, 대인관계문제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예언변수가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하고 예언변수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간간격을 두고 예언변수, 조절변수, 결과변수를 측정하는 종단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때 보호요인 개념에 충실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에 의해 수집되었다. 연구의 주제가 자신과 가족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보고, 교사보고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교차타당화나 반응경향성(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발달자산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발달자산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Scales(1999)에 의해 개발된

발달자산 모형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한글로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발달자산 척도 특히 환경이 제공하는 자산에 관한 내용을 묻는 외적 발달자산 문항들이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타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환경적,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발달자산 척도가 개발됨으로써 발달자산의 보호효과에 관한 더욱 풍부하고 건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수집이 되지 않도록 G시의 각기 다른 구에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라 아동의 가정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거주지역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표집을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생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이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주지역, 가정의 생활수준, 부모의 정신건강문제 등에 따른 유층무선표집을 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순규 (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규 (2009).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 103-123.

김은숙 (2009). 아동상담의 과정과 성과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재엽, 이서원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 및 영향. 연세행정논총, 28, 127-150.

김정란 (2003). 가정폭력노출 실태분석을 통한 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 1-23.

김정희 (2007).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1, 103-138.

김효진, 이재연 (2004). 초등학교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아동과 권리, 8, 413-437.

남영옥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재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5, 199-218.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 (2004).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611-636.

양혜원 (2002).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 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858>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상담지원현황.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http://kosis.kr/wsearch/totalSearch.jsp>에서 인출

이봉이 (2005). 초등학교의 KPRC 프로파일 유

- 형.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 지선례 (2010).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5), 119-128.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 (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65-91.
- 장덕희 (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연구*, 17, 143-166.
- 장준미 (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찬우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발달자산, 내외 통제성,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스트레스의 관계 및 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숙 (2002).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6, 245-256.
- 천희영, 옥경희, 김미혜 (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 153-168.
-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치료자의 전문적 경험과 공감능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 503-520.
- 홍상환, 황순택 (2004).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C-R 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483-50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문선, 조희숙 (2004). 청소년의 발달 자원과 건강위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85-98.
- Amato, P. R. (2004).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69-1287.
- Aspy, C. B., Oman, R. F., Vesely, S. K., McLeroy, K., Rodine, S., & Marshall, L. (2004). Adolescent violence: The protective effects of youth asse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268-276.
- Benson, P. L. (2006). *All kids are our kids*. San Francisco: Jossey-Bass.
- Booth, R. E., Zhang, Y., & Kwiatkowski, C. F. (1999). The challenge of changing drug and sex risk behaviors of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3, 1295-130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7).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ckenrode, J., Laird, M., & Doris, J.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3-62.
- Fincham, F. D., & Osborne, L. N. (199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Retrospect and prospect.

-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75-88.
- Garnezy, N., Masten,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1.
- Harris, J. R. (2000). Socializ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child's environments: Comment on Vandell. *Developmental Psychology*, 36, 711-823.
- Heller, S. S., Larrieu, J. A., D'Imperio, R., & Boris, N. W. (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 Neglect*, 23, 321-338.
- Hoglund, W. L., & Leadbeater, B. J. (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i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 533-544.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ghes, H. M., & Luke, D. A. (1998). Heterogeneity in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battered women. In G. W. Holden, R. Geffner, & E. N. Jouriles (Eds.),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Theory, research, and applied issues* (pp.185-22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nssen, T., & Carton, J. S. (1999).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and task difficulty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 436-442.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ffert, N., Benson, P. L., Scales, P. C., Sharma, A. R., Drake, D. R., & Blyth, D. A. (1998). Developmental assets: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 209-230.
- Leung, D. W., & Slep, A. M.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524-534.
- Levy-Tossman, I., Kaplan, A., & Assor, A. (2007). Academic goal orientations, multiple goal profiles, and friendship intimacy among early adolesc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231-252.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Luthar,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Luthar, S., & Zigler, E. (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Mahoney, J. L., Cairns, B. D., & Farmer, T. W.

- (2003). Promo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success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409-418.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Oman, R. F., Vesely, S., Aspy, C. B., McLeroy, K. R., Rodine, S., & Marshall, L. (2004). The potential protective effect of youth assets on adolescent alcohol and drug 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 1425-143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rick, B. C., Skinner, E. A., & Connell, J. P. (1993).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81-791.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 166-175.
- Pollard, J. A., & Hawkins, J. D.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 145-158.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cales, P. C. (1999). Reducing risks and building developmental assets: Essential actions for promoting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69, 113-119.
- Scales, P. C. (2000). Building students' developmental assets to promote health and school success. *The Clearing House*, 74, 84-88.
- Search Institute (2005). *Me and my world*. Minneapolis, MN: Author.
- Sesma, A., Jr., Mannes, M., & Scales, P. C. (2009). Positive adaptation, resilience, and the developmental asset framework.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 · 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443-467).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Stolberg, A. L., Camplair, C., Currier, K., & Wells, M. J. (1987). Individual, familial and

-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1), 51-70.
- Straus, M. A. (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An evaluation and new data on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 A. Straus & R. J. Gens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pp.49-7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Straus, M. A.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Wright, M. O., & Masten, A. S. (2009).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 · 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43-74).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원 고 접 수 일 : 2014. 02.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4. 19.

## The Moderating Effects of Developmental Assets on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

Juhee Park

Hyeonsook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negative effects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development are well established in the literature. However, not all of the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re maladjusted but some are resilient in the face of such ad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external and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Six-hundred eighty-three 5th- and 6th-graders (351 boys, 332 gir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designed to measure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evelopmental asse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Correlational analyse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developmental assets on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external assets had a positive main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at is, regardless of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external developmental assets functioned as assets in decreasing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was significant. Therefore,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evel of interpersonal problems differed by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Particularly,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was stronger in the low domestic violence exposure group than in the high domestic violence exposure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work as protective factors to ease of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isk calle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should be effective when provided before children ar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or immediately after domestic violence exposure occur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developmental asset, protective factor, interpersonal problem, moderating effect